

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ollege Students' Familism and Awareness of Parent-Supporting

동부산대학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이 은 경

Dept. of Family Welfare Dong-Pusan College
Associate Professor : Eun Kyung,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설정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end of the familism and the awareness of parent-supporting, showing how personal background variables affect the familism and how the familism affect the awareness of parent-supporting.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0, 1998 till June 5, 1998 for 621 college students consisted of 300 male students and 321 female students.

SPSS-PC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the data were tested by ANOVA, t-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Duncan Tes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college students' familism generally tends to show low scores ($M=2.79$), indicating the modern familism-individualism.
- 2) The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parent-supporting is reported to be high($M=4.23$); the highest awareness of parent-supporting is financial supporting, the next is service supporting, then emotional supporting.
- 3) For personal background variables, male students rather than female students, the students who have parents with more monthly income, and those who have experience in living with grandparents tend to have more traditional familism.
- 4) Older students, the students with more traditional familism, those who find more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 and male students rather than female students tend to show higher awareness of parent-

supporting.

- 5) In causal relations among the personal background variables, the familism, the awareness of parent-supporting, the variables with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amilism are gender, parents' monthly income, and experience in living with grandparents, in order of impact. Age, the familism,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 and gender, in order of impact, affect the awareness of parent-supporting.

Especially, the familism has the highest correlations with the awareness of financial, emotional, and service supporting, and shows considerable causal impact on the awareness of parent-supporting in general. That is to say, the more the familism, the more the awareness of the parent-supporting.

I. 서론

가족은 전통적으로 효이념에 뿌리를 둔 가족주의를 숭앙하면서 관습적이고 규범적인 관행으로서 노인의 중요한 부양과 보호의 근원이었다. 전통사회에서 노인의 부양은 가족이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경로효친의 사상에 근거한 미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70년대를 전후로 급속도로 전개된 산업사회적 사회변동의 후속적 영향으로 매우 어렵고도 도전적인 “노인문제”를 안게 되었다. 즉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의 외형적 변화와 여성의 취업활동,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의 노인 보호기능을 현저히 약화시켜 필연적으로 현대가족의 노인부양 체계에 상당한 우려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선진산업국가에서는 평균수명이 이미 80세를 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3%, 평균수명 55.3세에서 1995년 57%, 72.9세로 증가되었고 2020년이 되면 12.5%, 77.0세가 될 전망이다(통계청, 1991; 통계청, 1996). 이런 전반적 추세로 미루어 보아 2000년대에 들어가서 빠른 속도로 우리 노인인구의 절대수와 비율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2001년을 우리나라 노인인구(65+) 비율이 전체인구의 7%가 되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는 시점으로 보며 2025년에는 14%로 증가하여 25년 안에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60세를 기준으로 1960년 노인부양지수는 10.1로 생산연령인구(15~59)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00년에는 15.6으로 생산연령인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며 2025년에

는 노인부양지수가 35.1로 생산연령인구 3명이 노인 한분을 부양하게 되는 무거운 사회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통계청, 1991).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자료들은 2000년 이후 증가될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와 노인복지욕구(need)의 심각성을 충분히 제기하고 있으며 개인 및 사회환경의 맥락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더우기 부자중심의 가부장적인 확대가족제도가 특징이었던 전통사회에서는 노후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었으나 오늘날과 같은 산업화와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더욱 강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었고, 여기에 더불어 가족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 하며 개인보다는 가족을 위주로 하는 집합주의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근대적, 즉 개인중심적 개인주의로 변화함으로 인해 현대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자신들이 성장하고 생활해 온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가족주의 가치관에 익숙한 반면, 자녀들은 개인중심주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부모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노후부양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으며(김송애 외, 1991) 이러한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가족단위의 핵가족화를 촉진하며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감퇴시킴으로 노인들이 전통적인 혈연유대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 가치윤리 중 하나인 가족주의가치관은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함께 변화하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강한 문화적 규범으로 잔존하면서 가족생활 및 우리 생활의 가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노인복지정책 방향이 경로효친에 바탕을 둔 사적부양이 유지되도록 가족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은 노인부양의 근간이 가족부양임을 감안할 때(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계, 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을 반영하고 현시대에 적합한 가족부양체제를 개발하여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내면화된 가치관과 규범의식이 향후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동요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때 젊은 세대에게 현 사회에 적합한 효의식의 배양과 새로운 노인관 확립 및 노인 부양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과정에서 사회적·문화적 경험이 기성세대와 다르고 장래 고령사회의 1차적 노인부양책임을 지게 될 젊은 세대인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 노후의 부양의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노인복지법(1993)의 이념에 근거한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의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이 노령화와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체계하에서도 여전히 부응하는 최선의 정책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현대화 될수록 노인의 지위가 직선적으로 하락되어 심각한 노인부양문제가 야기되고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부양이 불가피하게 되리라는 현대화 이론의 관점에 대한 타당성을 함께 고찰해 보고, 남녀 대학생의 개인배경 변인 및 가족주의 가치관이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노인에 관한 부양의식 형성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학교 및 사회교육계획과 향후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주의 가치는 오랜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가치¹⁾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가족주의 가치는 농경사회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나 산업사회로 사회구조가 바뀐 현대에 와서도 가족주의 가치는 우리의 고유한 가치로 인정되고 일상생활에서 특히 가정교육의 측면에서 수용하도록 강조되며, 인간관계의 규범으로서 가족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주의 가치란 가족주의에 대한 가치를 의미하는데, 가족주의란 일체의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 지속, 기능과 관련을 맺어 결정되는 가족집단의 단결과 영속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구성원들의 꾸준한 집단적 노력이라고 하고 한국인의 가족생활에 대한 전통적 가치의식의 특징을 1) 가족내부의 엄격한 신분서열 존재 2) 친자중심의 가족구성 3) 지배와 복종의 종속적인 관계로 유지되는 친자관계 4) 상·하의 신분서열식으로만 유지되는 가정의 화목 5) 초시간적 집단인 집의 유지, 존속을 위한 가족 개개인의 독립, 자유, 발전을 배척하는 점으로 개인보다는 집을 위주로 한다고 하였다(최재석, 1979).

옥선화(1989)는 가족주의 가치관이란 가족을 다른 집단이나 개인보다 우선시하며 부계가족원리를 근본으로 하여 가족단위 안에서 최고 세대인 부모를 공경하며 가족내 인간관계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가족집단에 대한 태도가 친척집단에 까지 확대되어 이들간에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손인수(1978)는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구성원 개인보다 가족집단을 우위에 두고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태도이므로 가족주의에서는 인간이 한 인간이기 이전에 가족의 일원임이 요구되었고 가족의 원리가 가족내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외 부에까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족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까지도 가족의 질서에 의해 기록된다(이광규, 1975)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원리에 의한 가족주의가 개인과 사회를 지배하여 왔다. 한국의

1) 가치관 영속적인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한 행동양식이다(Rokeach, 1973, p.5).

전통사회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사회통합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개인논리와 국가논리마저도 가족에 용해시켜 가족을 논리적으로 개인과 국가라는 두 극단을 초월하여 사회구조의 최고의 정점에 두어 왔다(장현섭, 1994). 이와 같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아직도 현대 한국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즉 가족은 아직도 어느 다른 사회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사회구조와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체계가 되고 있다. 임의섭(1986)도 한국의 전통적 가치체계의 중심적 특성은 집합주의의 가치지향으로서 가족,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등 여러 수준의 집합체 가운데서도 가족이 가장 중요한 집합체로 강조되는 가족주의적(Familistic) 집합주의라고 하였다.

Burgess와 Locke(1945), Heller(1970)는 가족주의를 핵가족 단위로서의 가족에 한정하여, 개인주의와 대비되는 집합주의의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Heller(1970)는 가족주의의 측면을 다섯가지로 제시하였는데 1) 모든 가족구성원은 그들이 가족집단에 속해 있다고 두드러지게 느끼고 2) 가족의 목표성취를 위하여 개인활동을 완전하게 통합하며 3) 토지, 금전, 물적재화가 가족자산이라고 가정하여 개별구성원에게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포함하고 4) 부모와 결혼한 형제자매간의 친밀한 관계의 교환으로 구성되는 '상호조력' 5) 성인자녀가 가족의 기대에 맞추어서 경제활동의 시작 및 지속에, 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는 가족의 영구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 등을 가족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란 가족에게 우선성을 부여하는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원리로 인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하며 부계가족원리를 지지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효의 원리를 지지하는 동시에 이와같은 가족집단에 대한 태도가 친척집단에 까지 확산되는 것을 지지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

의식에 대한 총체적인 것(육선화, 1989)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가족은 자녀의 가치형성에 기본이 되는 사회화를 담당하는 일차적 집단이기는 하지만 근대화, 도시화, 사회현상의 다원화로 현대의 가족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가족이외의 사회적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내의 세대 즉 부모자녀 세대간에 가치특성은 차이가 있으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Bengtson(1975)은 집합주의와 개인주의의 가치는 세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 가치지향성에 있어서 세대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고 선행연구(육선화, 1989; 이주원·안선미, 1986) 결과에서도 차이가 있음이 밝혀 졌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는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성별,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 연령, 종교 등에 따라 달라 전통성과 근대성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임의섭(1986)도 이러한 상황을 '전통성과 근대성이 혼재하는 문화적 이중구조'로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공존현상'으로 표현하였다. 가족주의가치관의 변화를 다룬 실증적 연구들에서도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자녀수, 가족유형, 결혼년수, 경제상태, 종교, 동거형태 등이 관련변수들로서 연구대상에 따라 영향변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박재간·임춘식, 1983; 육선화, 1989; 김명자, 1985; 이연주, 1984; 김일명, 1988; 김송애, 1991; 김일명·김명자, 1989).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근대화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인 것에서 근대적인 것으로 변화해 가며 공존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젊은 세대의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부양의식·부양의무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2. 현대화 과정에서의 노인문제

현대사회에서 노인이라는 특정 연령집단이 하나의 독특한 생활단계를 형성할 정도로 사회전체 집단으로부터 격리 되어 가는 현상은 분명히 산업화라든지 도시화와 같은 현대화 현상의 부산물로서 나타난 결과이다(양춘, 1984).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

난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 현상에 따라 도시에는 많은 저임금 생활가구과 무주택 가구를 증가시켜 가족의 분화를 촉진했으며 서구의 개인화(individuation), 개별화(atomization) 등의 가치관의 유입으로 정서적 핵가족화가 극도로 진행되어 더 이상 노인 부모를 포함하지 않을 정도로 가족의 범주가 축소되었다. Parsons(1942)는 이와같은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는 노년층을 친족과 직업과 지역사회에서 기능적으로 고립화 시킨다고 지적했으며 Goode(1963)는 산업화가 가족에게 미친 중요한 영향을 '노부모에 대한 자식 의무가 약화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노인문제의 원인을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이론에는 기능주의이론, 갈등주의이론, 상호작용주의이론, 그리고 교환주의이론 등이 있는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의 현대화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산업사회에서 노인문제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역할에서 배제하는데 있다. Cowgill과 Holmes(1972), Cowgill(1974, 1986)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정의되어 등장하게 된 것은 현대화 과정, 좁게는 산업화과정이 진행된 이후부터라고 논의하면서, 사회변화 과정에서 현대화란 불가피한 것으로 현대화(modernization)는 ①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 ② 경제적 생산기술의 발전, ③ 대중교육의 확대, ④ 도시화를 중심으로 발전된 전반적인 사회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네가지의 대표적인 현대화 요인들은 다시 인과적으로 다른 요인들을 유발시킴으로써 오늘날 산업사회에서의 노인의 지위를 약화시키게 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즉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전통 사회구조에서의 노인지위는 절대적이지만 사회의 현대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인의 지위는 낮아지고 사회의 주요활동에서 제거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현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 of aging)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대화의 네가지 요인들은 노인의 지위를 약화시킴으로써 노인문제, 즉 ① 긴 여가 시간 및 역할상실(무위)의 문제 ② 수입감소에 따른 경제적 의존문제 ③ 건강보호의 문제 ④ 사회심리적 소외·고립의 문제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초래시키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의 양상도 위와 같은 '사중고(四重苦)'로 표현된다. 결과적으로 현대화가 노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평균수명의 연장고 고령인구의 증가, 전통사회에서 권위자로부터의 지위 하락, 직업의 전문화 과정에서 효율과 능력주의에서 밀려나고 은퇴가 제도화됨으로 사회의 무역할자가 되며 노인보다 자녀의 지위가 상승되는 지위의 전도현상으로 사회적 분리가 생기게 된다.

또한 가족형태는 핵가족화되고 노후부양은 가족에서 정부로 이양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주의·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인정과 사랑에 바탕을 둔 전통적 경로효친사상의 말살과 함께 노인의 위치는 약화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노인으로 하여금 경제생활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크게 위협을 주어 노령에 야기되는 고독감,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대화이론에 의하면, 전통사회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노인부양문제가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심각하게 대두되어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부양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인협과 최성재(1987)는 현대화이론이 노인의 지위하락의 인과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노인문제로 연결까지는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노인의 지위가 약화된 것이 노인문제의 전반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대화이론의 기본적인 설명의 틀을 노인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고 현대화이론의 단점을 세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다. ① 현대화 이전에도 노인의 지위가 낮았던 사회가 상당히 있었다. ② 후기산업사회에서 노인의 세력,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대화에 따른 계속적인 하락이라는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 ③ 현대화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고려했지 가족제도의 유지, 경로의 가치관유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등 노인의 지위하락을 막는 상승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는 노인의 지위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그 요인들은 가족제도, 경로의 가치관 유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Palmore and Manton(1974)은 현대화와 노인의 지위관계에서 곡선적 관계를 발견하였는데 더 현대화

된 사회에서는 지위만 낮아진 것이 아니며 가장 발전된 나라에서 노인의 지위가 덜 개발된 나라보다 약간 더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반적인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문제가 사회전체의 문제임이 인식되어 제반 사회정책으로 노인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현대화 과정에서 노인의 지위는 직선적으로 하락되지 않고 그 사회의 가치관과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노인의 위치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의한 효 이념에 뿌리를 둔 가족주의 가치를 고양시켜 경로효친의 사상에 근거한 미덕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을 지속시켜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가족주의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의식

전통사회에서 현대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게마인사프트(Gemeinschaft)에서 게젤사프트(Gesellschaft)로, 기계적 연대(mechanic solidarity)에서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로, 공동체(communitiy)에서 결사체(association)로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퇴니스(F. Tönnis), 뒤르켐, 맥키버(R. M. MacIver) 등의 공동체 해체론은 사회의 변화가 산업화, 경제발전, 기술 변화 등 물적변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가치관 등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즉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가족관계 역시 가치관 및 문화의 측면에서 가족주의 보다는 개인주의적 경향, 비합리적 성향에서 합리적 성향, 권위주의적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안치민, 1997).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에서 기인한다기 보다 어느 정도 그 사회의 문화전통 및 사회규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반박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가족주의라는 전통적 사회관계가 오랫동안 우리의 문화적 성격을 이루어 왔고 근래까지도 비교적 잘 유지되어 온 편이라 볼 수 있다. 가족주의 또는 친족주의는 가족관계의 통합을 매우 중요시하며 가족관계 중에서도 부모-자녀관계

가 지고의 위치를 점유하고, 그 핵심적 가치는 가족관계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다른 관계보다도 효에 바탕을 둔 부모-자녀관계를 중요시 한다(성규탁, 1995). 이에 따라 노부모부양은 처음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고, 후에는 노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는 상호성의 주기를 갖는 상호교환적 관계라는 합리적 의식을 떠나 자연적이고도 맹목적인 의무로 인식되어 왔다(안치민, 1997). 부자중심의 가부장적인 확대가족제도가 특징이었던 전통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노후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었으나 근대성의 심화에 따라 사회적 결속을 안정시키는 친족체계가 약화되고 대신, 친교와 우정같은 개인적 관계가 부각되는 오늘날과 같은 산업화와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노인문제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7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으로 비생산, 중속인구에 속하게 된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 작하였다(김명자, 1982; 현의성, 1983).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 가족주의 경향이 비교적 강조되고는 있지만 가족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에 따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²⁾.

이와같은 가족관계의 변화는 특히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과거 아들 또는 장자 위주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가 점차 아들, 딸 공동의무로 인식되어가고 있다(통계청, 1991; 1996, 한국의 사회지표 참조). 근래에 와서 동거형태도 많이 변하고 있으며, 장남이외에 차남과의 동거 또는 딸에 의한 동거율이 늘어나고(김해운, 1977), 장남이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많이 약화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인구보건원, 1985; 서병숙, 1988). 전통적 가치관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변화하는 전통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치관내에서 동거하는 자녀들

2) 집합주의적 가치체계와 경로효친의 규범체계가 지배적이었으나 점차 개인주의, 평등주의 가치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경로효친의 윤리규범도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다(차홍봉, 1995).

은 국가나 사회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역할 뿐아니라 노인을 수발해야 하는 주수발의무자 역할과 경제적 부양의무자의 역할까지를 담당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역할을 떠맡게 되면서 노인부양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부담을 지니게 되어 고통을 겪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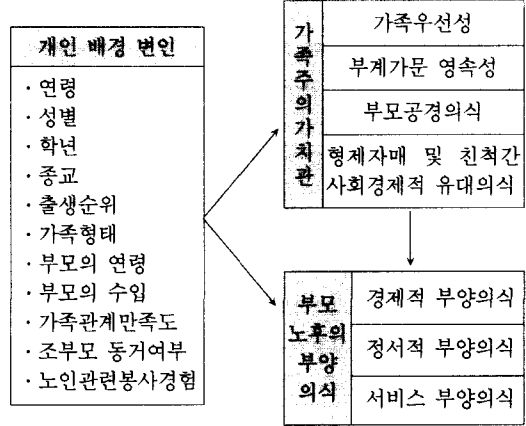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직도 노인부양의 근간이 가족부양임을 감안할 때, 또한 구미 여러나라들에서의 노인에 대한 소외와 고립의 문제, 비인간화의 문제 등 공적 사회부양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부양과 함께 가정에서의 정서적 부양이 크게 부각되는 이때에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계, 사회·문화적인 제반여건 등을 반영하고 현시대에 적합한 가족부양체제를 개발하여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하겠고 또한 가족부양을 최대한으로 보조하고 원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III. 연구문제 설정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심각해질 노부모 부양문제에 직면하게 될 남녀 대학생들의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개인배경 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개인배경 변인에 따른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개인배경 변인은 가족주의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개인배경 변인, 가족주의가치관이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가족주의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모형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부산시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13개교와 2년제 대학 7개교의 전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가까운 장래에 노인부양 문제에 직면하게 될 세대로서 이들 대부분이 70년대 후반에 출생하여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산업화 및 근대화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었던 시기에 성장하여 물질적 풍요를 누려온 세대이며 핵가족화된 가정에서 사회화 되어 근대적 성역할태도 및 합리적, 평등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니며 개성을 중시하는 세대라고 생각되므로 가족주의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이 기성세대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1) 가족주의가치관 척도

본 연구의 가족주의가치관 측정문항은 옥선화(1989)가 작성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옥선

화의 가족주의가치관 측정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적절하다고 평가되는 문항으로 총 15문항을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내용별로는 가족우선성 4문항, 부계가문의 영속성 3문항, 부모공경의식 5문항,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로서 "적극 반대"에 1점, "약간 반대"에 2점, "찬반 미정"에 3점, "약간 찬성"에 4점, "적극 찬성"에 5점을 주어 전체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즉, 가족중심적 집합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주의가치관이 낮은 것으로 즉, 개인중심적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 부모노후의 부양의식 척도

대학생의 부모노후의 부양의식 측정문항은 기존 경험적 연구들인 김태현(1981), 김종숙(1986), 고경애(1989), 임한순(1991) 등이 사용하였던 문항들을 참고로 하여 경제적 부양의식 9문항, 정서적 부양의식 9문항, 서비스 부양의식 9문항으로 하여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로서 "적극 반대"에 1점, "약간 반대"에 2점, "찬반 미정"에 3점, "약간 찬성"에 4점, "적극 찬성"에 5점을 주어 전체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각 척도별 문항수와 신뢰도 계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각 척도별 문항수 및 신뢰도 계수

척도의 종류	문항수	Cronbach's α
가족주의가치관 척도	15 문항	.80
경제적 부양의식 척도	9 문항	.88
정서적 부양의식 척도	9 문항	.82
서비스적 부양의식 척도	9 문항	.88
전체 노부모 부양의식 척도	27 문항	.92

*Cronbach's α 값이 0.8 이상으로 항목(Item)간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조사는 1998. 5. 20~6. 5에 걸쳐 임의 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질문지 700부를 배포·실시되었으며, 회수된 645부(92.1%)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621부(88.7%)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와 t-Test, 피어슨 적률상관(Pearson's Correlation) 및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사후검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21)

개인 배경 변인		N	(%)
연령	19세 이하	213	34.3
	20 - 23세	296	47.7
	24세 이상	112	18.0
성별	남	300	48.3
	여	321	51.7
학년	1학년	205	33.0
	2학년	187	30.1
	3학년	151	24.3
	4학년	78	12.6
종교	기독교	132	21.3
	천주교	51	8.2
	불교	161	25.9
	무교	267	43.0
	기타	10	1.6
출생순위	장남·장녀	294	47.3
	중간	120	19.3
	막내	184	29.6
	외동	23	3.7
가족형태	핵가족	574	92.4
	확대가족	47	7.6
父 연령	40대	230	39.0
	50대	312	52.9
	60대	48	8.1

개인 배경 변인		N	(%)
모 연령	40대	278	62.8
	50대	142	32.1
	60대	23	5.2
부모의 월수입	상	36	5.8
	중	507	81.6
	하	78	12.6
가족관계 만족도	매우 만족	120	19.3
	대체로 만족	441	71.0
	불만	51	8.2
	대단히 불만	9	1.4
조부모 동거여부	현재 동거중	92	14.8
	동거경험 有	225	36.2
	동거경험 無	304	49.0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	자주 경험	9	1.4
	가끔 경험	157	25.3
	경험 無	455	73.3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를 부산시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으로 한정함으로 향후 부모노후의 부양에 직면하게 될 모든 성인자녀 및 전국적으로

일반화시키는데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신뢰도 검증을 통한 것이긴 하지만 표준화된 척도는 아니므로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 둔다.

V.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처리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의 일반적 경향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은 선행연구들(김송애·조병은, 1991: 30~50대 기혼여성 M=3.26; 한은주·김태현, 1994: 시부모 3.36, 며느리 2.91)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M=2.79) 세대간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었고 대학생들이 대체로 개인중심적 개인주의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남학생(M=3.00)이 여학생(M=2.59)

〈표 3〉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 부양의식의 일반적 경향

(N=621)

내 용	M	SD	남 (300)		여 (321)	
			M	SD	M	SD
가족 우선성	2.76	.75	2.89	.78	2.63	.70
부계가문 영속성	2.28	.94	2.59	1.01	2.00	.77
부모공경의식	2.73	.69	2.94	.67	2.52	.65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3.38	.60	3.59	.54	3.19	.60
가족주의가치관	2.79	.56	3.00	.55	2.59	.48
경제적 부양의식	4.38	.49	4.40	.51	4.36	.47
정서적 부양의식	4.00	.52	4.03	.53	3.97	.50
서비스 부양의식	4.31	.51	4.33	.54	4.30	.48
전체 부양의식	4.23	.43	4.25	.45	4.21	.41

에 비해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의 경향을 갖고 있음은 선행연구결과(우미경, 1988; 최승원 외, 1997; 최정혜, 1997)와도 일치한다. 하위영역별로는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M=3.38$) 영역에서 가장 높은 가족중심적 집합주의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가족우선성' ($M=2.76$), '부모공경의식' ($M=2.73$), '부계가문의 영속성' ($M=2.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가치관의 문항별 평균점수를 비교해 볼 때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상의하고 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M=3.98$), "만약 형제자매 중에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갚아 주어야 한다." ($M=3.53$), "자녀는 자신의 개인적 관심보다 가족의 관심을 더 우위에 두어야 한다." ($M=3.44$), "분가해서 살 경우 시부모와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 ($M=3.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주의가치관 하위영역 중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을 가장 중시하여 친척관계에 대한 집합주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선행연구(한은주 외, 1994; 최정혜, 1997)결과와 일치하며 다음으로 '가족 우선성', '부모공경의식'에서 각각 가족관심 및 분가거주거리 등에서 집합주의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반면,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결혼 배우자는 부모가 정해 준대로 따라야 한다." ($M=1.69$), "자신이 가지려는 직업에 대하여 가족들이 반대할 경우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한다." ($M=1.97$),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기는 것은 우리 가족 뿐만아니라 가문 전체의 불행이다." ($M=2.05$), "자식을 낳는 중요한 이유는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이다." ($M=2.2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의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신과 관련된 사항인 결혼이나 직업선택 등에 있어서 부모의사나 가족의 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의식에 대한 가치관은 가족주의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부계가문의 영속성'에 대한 가치관에서도 아들을 중시하는 가문위주의 집합주의 가치관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의 부모노후의 전반적인 부양의식은 매우

높았으며 ($M=4.23$), 남학생 ($M=4.25$)이 여학생 ($M=4.21$)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으로 선행연구결과(이희자·김영미, 1996; 최승원 외, 1997; 최정혜, 1997)와 일치하였다. 딸에 비해 가족주의가치관이 더 높은 아들이 여전히 부모부양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부양의무감이 높다는 선행연구(김송애·조병은, 1991)를 일부분 지지하였다. 그러나 서구에서의 딸의 부양책임에 대한 부담이 더 높은 연구결과(Rossi and Rossi, 1990; Gary R. Lee et al, 1993)와는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부양의식에 관한 문항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몸이 편찮으실 경우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 ($M=4.66$), "노인이 외출하시고자 할 때 가지신 돈이 넉넉한지 반드시 여쭙겠다." ($M=4.45$)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문항은 "금전문제로 노인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 노인을 위해 되도록 양보한다." ($M=4.15$)로 나타났다. 자녀의 부양의무감이 높을수록 현재의 노부모 부양행동 및 미래의 부양참여에 더 많이 부양하고자 한다는 연구결과(송현애, 1986)를 볼 때 대학생의 경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노인문제는 빈곤, 불건강, 고독, 그리고 무위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 경제적 부양으로 노인 생활안정의 제 일차적 조건이 되며(최순남, 1997; 이신숙, 1994; 송현애, 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물질이나 건강 중 어떤 교환가치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사회의 공적부양체제의 지원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

정서적 부양의식에 관한 문항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노인이 혹 자녀들로 인하여 서운해 하신다면 빨리 풀어드리도록 늘 신경을 쓰겠다." ($M=4.48$), "노인이 하루종일 무엇으로 소일하고 계신지에 관심을 가진다." ($M=4.24$)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문항은 "부모님이 나를 아직도 어린애로 알고 필요없는 잔소리를 계속하실 경우도 끝까지 다 들은 후 공손히 대답한다." ($M=3.65$), "쓸모 없는

물건들을 모아 두는 노인을 이해하고 나도 그 물건을 되도록 소중히 한다.”(M=3.67) 순이었다. 부모노후의 부양의식 중 정서적 부양의식이 가장 낮으며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정서적 부양의식이 더 낮게 나타난 결과는, 구미 여러나라의 공적부양의 한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일부 공적기관에 의해 처리된다 하더라도 정신적 고독 및 소외감은 해소시키기 어렵다. 폴 투우르니에(Paul Toumier)는 가까운 가족과의 고립상태는 무엇으로도 메꾸기 힘든 외로운 공포로서 노인의 경제적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노인은 아들보다 딸과의 동거시 정서적 만족도가 가장 높고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김태현, 1981; 임중권 외, 1984; 장선주, 1989)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노인의 부양책임이 아들, 딸 모두(1979년 6.4%에서 1994년 56.3%로 증가: 경제기획원, 1992, 1996)라는 의식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여대생의 정서적 부양의식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더불어 21세기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부양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서비스 부양의식에 관한 문항 중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노인의 더러워진 의복이나 속옷은 자주 세탁해 드린다.”(M=4.46),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친척, 친구집을 방문하시고자 할 때는 모셔다 드린다.”(M=4.42) 순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문항은 “되도록 노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탁을 준비한다.”(M=4.13), “가족끼리의 외식이나 외출할 때 반드시 노인을 모시고 간다.”(M=4.1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내용별로는 ‘경제적 부양의식’(M=4.3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적·서비스 부양의식’(M=4.31), ‘정신적·정서적 부양의식’(M=4.00) 순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최승원 외, 1997; 최정혜, 1997)와 일치하였고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부모 부양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선행연구(임중권 외, 1985; 허훈, 1988; 이희자·김영미, 1996; 최정혜, 1997)에서 부모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인 대학생들이 아직 실제 부

양을 담당하지 않고 있음으로 피상적으로 부양을 고려한 결과로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나 산업화, 핵가족화로 가족주의가치관이 변화되어도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아직까지 효사상 등이 강한 규범의식으로 남아 부양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개인배경 변인에 따른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

〈연구문제 2〉 개인배경 변인에 따른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은 차이가 있는가?

〈표 4〉에서 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은 개인배경 변인 중에서 연령($p<.001$), 성별($p<.001$), 종교($p<.001$), 가족형태($p<.05$), 모연령($p<.01$), 부모의 월수입($p<.05$), 가족관계만족도($p<.05$), 조부모 동거여부($p<.05$), 노인관련 자원봉사경험유무($p<.01$)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은 연령($p<.001$), 부모의 월수입($p<.001$), 가족관계만족도($p<.001$)의 세 변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의 연령에 따라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가족주의가치관($p<.001$) 및 경제적($p<.001$), 정서적($p<.01$), 서비스 부양의식($p<.001$), 전체 부양의식($p<.001$) 등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족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노부모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24세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은 집단이 부모노후의 경제적 부양의 부담이 높고 노부모의 감정과 정서를 보다 많이 이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부양의무감이나 부양행동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김송애, 1991; 우미경, 윤종주, 1982), 연령이 낮을수록 효행의지를 덜 중요시하며 부모에 대한 책임감과 부모를 위한 희생정신을 중요시하는 경향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다(성규탁, 1995)라고 한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표 4〉 개인배경 변인에 따른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

(N=621)

변인	구분 내용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											
		M	F·t	D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서비스 부양의식			전체 부양의식		
		M	F·t	D	M	F·t	D	M	F·t	D	M	F·t	D	M	F·t	D
연령	19세이하(213)	2.73	***	B	4.31	**	B	3.92	***	B	4.25	***	B	4.16	***	B
	20-23세(296)	2.75	9.43	B	4.37	6.91	B	3.99	10.69	B	4.28	10.37	B	4.21	12.83	B
	24세이상(112)	2.99		A	4.52		A	4.19		A	4.51		A	4.40		A
성별	남(300)	3.00	***		4.40	.92		4.03	1.51		4.33	.70		4.25	1.23	
	여(321)	2.59	10.08		4.36			3.97			4.30			4.21		
학년	1학년(205)	2.78		A	4.33		B	3.97		B	4.26		B	4.19		B
	2학년(187)	2.82	.66	A	4.35	2.45	B	3.99	1.65	AB	4.36	2.62*	AB	4.23	2.48	AB
	3학년(151)	2.79		A	4.42		AB	3.99		AB	4.27		B	4.22		AB
	4학년(78)	2.71		A	4.49		A	4.12		A	4.42		A	4.34		A
종교	기독교(132)	2.67		B	4.33		A	4.01		A	4.32		A	4.22		A
	천주교(51)	2.85	***	AB	4.45		A	4.08		A	4.40		A	4.31		A
	불교(161)	2.94	6.77	A	4.39	1.16	A	4.00	.61	A	4.29	.52	A	4.22	.63	A
	무교(267)	2.73		B	4.39		A	3.98		A	4.30		A	4.22		A
	기타(10)	3.15		A	4.16		A	3.84		A	4.37		A	4.12		A
출생 순위	장남·장녀(294)	2.80		A	4.36		A	4.01		A	4.31		B	4.23		AB
	중간(120)	2.71	1.24	A	4.41	1.36	A	4.02	.82	A	4.31	2.19	B	4.24	1.72	AB
	막내(184)	2.82		A	4.37		A	3.96		A	4.28		B	4.20		B
	외동(23)	2.72		A	4.56		A	4.12		A	4.57		A	4.41		A
가족 형태	핵가족(574)	2.77	*		4.38	.45		3.99	-.93		4.32	.59		4.23	.03	
	확대가족(47)	2.96	-2.23		4.35			4.07			4.27			4.23		
부연령	40대(230)	2.74		A	4.33		A	3.95		A	4.28		A	4.18		A
	50대(312)	2.80	1.53	A	4.39	2.25	A	4.01	1.77	A	4.31	1.75	A	4.24	2.52	A
	60대(48)	2.88		A	4.47		A	4.07		A	4.43		A	4.32		A
모연령	40대(278)	2.70	**	B	4.34		A	3.98		A	4.29		A	4.21		A
	50대(142)	2.88	6.03	A	4.45	2.07	A	4.04	.49	A	4.38	1.69	A	4.29	1.80	A
	60대(23)	2.90		AB	4.38		A	3.98		A	4.27		A	4.21		A
부모의 월수입	상(36)	2.97	*	A	4.16	**	B	3.86	**	AB	4.08	***	B	4.03	***	B
	중(507)	2.79	4.18	A	4.41	6.90	A	4.03	4.78	A	4.35	6.94	A	4.26	8.43	A
	하(78)	2.67		B	4.27		B	3.87		B	4.20		B	4.11		B
가족 관계 만족도	매우만족(120)	2.87		A	4.48		A	4.12		A	4.43		A	4.34		A
	대체로만족(441)	2.79	*	AB	4.38	***	B	3.99	***	B	4.30	**	B	4.22	***	B
	불만(51)	2.63	2.98	B	4.23	6.39	C	3.89	6.33	B	4.18	4.27	B	4.10	7.54	BC
	대단히불만(9)	2.51		AB	3.89		C	3.47		C	4.07		AB	3.81		C
조부모 동거 여부	현재동거중(92)	2.94	*	A	4.38		A	3.99		A	4.26		A	4.21		A
	동거경험有(225)	2.78	4.48	B	4.37	.10	A	4.02	.40	A	4.36	1.56	A	4.25	.39	A
	동거경험無(304)	2.74		B	4.39		A	3.98		A	4.29		A	4.22		A
노인 관련 자원봉 사경험	경험많음(19)	3.17	**	A	4.23	.91	A	4.07	1.30	A	4.47	.51	A	4.26	.10	A
	가끔경험(157)	2.89	6.17	A	4.35		A	4.05		A	4.32		A	4.24		A
	경험無(455)	2.74		B	4.39		A	3.98		A	4.31		A	4.23		A

*p<.05 **p<.01 ***p<.001 D : Duncan Test

성별에 따라서는 가족주의가치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p<.0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통적인 가족주의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김경숙, 1982; 김재은, 1987; 우미경, 1988; 최승원 외, 1997; 최정혜, 1997)과 일치한다. 이는 성역할 태도연구 등에서도 남자에 비해 여자가 근대적인 경향을 띠며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이 가족주의가치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학생이 더 근대적인 가치관 즉, 개인중심적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부양의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모든 영역에서 부양의식이 다소 높게 나타나 부모의 부양은 여전히 아들이 담당한다는 의식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송현애(1988)의 연구에서도 딸보다 아들 특히 장남이 부모부양에 대한 자녀로서의 의무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가족의 경우 자식으로서의 의무감은 아들이 딸보다 높아 부계가족의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가족주의가치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서비스 부양의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나타났다($p<.05$). 사후검증결과,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전체 부양의식에서 4학년 집단이 각각 다른 집단과 차이를 나타내어 연령과 마찬가지로 학년이 높은 집단이 부모부양의식의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학년이 될수록 부모부양 책임의식이 높다(허훈, 1988)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종교의 경우 가족주의가치관에서만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는데($p<.001$) 사후검증결과, 기독교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가족주의가치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교 및 기타 종교를 가진 경우 가족중심적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가 기독교일 때 근대적인 의식을 갖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유영주, 1978; 한은주·김태현, 1994).

출생순위별로는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부양의식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후검증결과 외동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서비스 부양의식이 높았고 전체 부양의식에서도 외동 집단이 막내

집단에 비해 부양의 부담을 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식이 한명 뿐이므로 본인들이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을 더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장남이나 첫째일수록 부모부양 책임의식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서병숙, 1986; 임인혜, 1987; Gary R. Lee et al., 1993)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가족형태에서는 가족주의가치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p<.05$)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가족중심적 가치를 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서는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아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최정혜, 1997).

부모의 연령에 있어서는母的 연령에서만 가족주의가치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p<.01$) 母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들의 가족주의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검증결과, 50대와 40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월수입 정도에 따라서는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노후의 부양의식 전 영역에 걸쳐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즉 월수입이 많을수록 가족중심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사후검증결과 부모의 수입이 하 집단이 상, 중인 집단보다 개인주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최승원 외, 1997)에서는 부모의 수입정도가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수입이 높을수록 가족주의가치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있어서는 월수입 정도에 따라 경제적($p<.01$), 정서적($p<.01$), 서비스($p<.001$), 전체 부양의식($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월수입이 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양의식이 낮았고 사후검증결과, 중 집단이 상, 하 집단에 비해 부양의식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훈(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부모가 경제력이 없으면 향후 부모님의 부양책임의식이 높았으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송애·조병은(1991)의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의 수입이 가족주의가치관에는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양의무감과 부양행동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쳐서 부모의 수입이 없거나 적을 때 부양의무

〈표 5〉 개인배경 변인,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621)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경제적 부양의식	-											
2. 정서적 부양의식	.56***	-										
3. 서비스 부양의식	.60***	.58***	-									
4. 가족주의가치관	.17***	.31***	.19***	-								
5. 연령	.14***	.17***	.15***	.14***	-							
6. 성별	-.04	-.06	-.03	-.38***	-.25***	-						
7. 학년	.10**	.07*	.06	-.03	.64***	.06	-					
8. 출생 순위	.05	-.01	.02	-.00	-.03	-.02	-.08*	-				
9. 가족 형태	-.02	.04	-.02	.09*	.07*	.02	-.01	-.06	-			
10. 부모의 월수입	.01	-.04	-.00	-.11**	-.01	-.08*	.02	.03	.04	-		
11. 가족관계 만족도	-.16***	-.16***	-.14***	-.11**	-.08*	.05	-.03	-.00	-.01	.12***	-	
12. 조부모 동거여부	.01	-.02	-.00	-.11**	-.06	-.02	-.01	.11**	-.36***	.01	-.03	-

*P<.05 **P<.01 ***P<.001

감과 부양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기혼여성은 실제 부양의 담당자이므로 부양을 책임지지 않고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답을 할 수 있는 대학생들보다는 부양의무감과 부양행동의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에서도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노후의 부양의식 모든 영역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가족주의가치관(p<.05), 경제적(p<.001), 정서적(p<.001), 서비스(p<.01), 전체 부양의식(p<.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가족관계가 매우 만족인 집단이 불만족한 집단보다 가족주의가치가 높고, 만족이나 불만족한 집단보다 노부모 부양의식도 높게 나타나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조부모 동거여부는 가족주의가치관에 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즉, 현재 동거중인 집단이 과거동거를 했거나 동거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가족주의가치가 높아 가족중심적 집합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관련 변인인 대학생의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여부에 따라서는 가족주의가치관(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봉사경험이 많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았으며 부양의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없는 경우는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은 반면, 봉사를 통한 접촉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정서적, 서비스 부양의식 및 전체 부양의식이 높은 것은 노인부양에 대해 막연한 생각이 아닌 봉사현장에서 노인부양에 필요한 것을 체험하고 느낀 까닭이라고 사료된다. 노인과의 직접적인 접촉경험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변인이었다는 이선자(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는 의식이나 태도가 실제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회학습이론(Mischel, 1968)의 가정을 지지해 주고 있다.

3. 개인배경 변인이 가족주의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 개인배경 변인은 가족주의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배경 변인이 가족주의가치관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Enter방식의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기 전에 개인배경 변인,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 변인들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를 살펴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므로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배제되었다고 본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가족주의가치관에 연령, 가족형태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나, 남녀 대학생별, 부모의 월수입, 가족관계 만족도, 조부모 동거여부는 부적관계로 나타났다. 개인배경 변인들이 가족주의가치관에 미치는 좀더 세분된 변인간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로는 연령, 성별, 출생순위, 가족형태, 부연령, 모연령, 부모의 월수입, 가족관계 만족도, 조부모 동거여부 등으로 명목변수들은 가변수 처리(dummy화)하여 통계에 사용하였다.

<표 6>의 회귀분석 결과, 가족주의가치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배경변인은 성별(p<.001)과 부모의 월수입(p<.05), 조부모 동거여부(p<.05)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성별의 β계수의 절대값

이 크므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주의가치관이 높아 가족중심의 집합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 선행연구들(김일명, 1988; 양명숙, 1996; 우미경, 1988; 최승원 외, 1997; 최정혜, 1997)과 일치하여 가족주의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월수입과 조부모 동거여부의 독립변인의 경우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었는데 즉, 부모의 월수입이 많은 집단일수록, 또 조부모와 현재 동거를 하고 있거나 과거 동거경험이 있는 집단인 경우 가족주의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모든 변인들이 가족주의가치관을 설명해 주는 설명력은 17%였다.

4. 개인배경 변인, 가족주의가치관이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4> 개인배경 변인, 가족주의가치관이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개인배경 변인과 가족주의가치관이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표 5>에서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부양의식 모두 가족주의가치관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개인배경 변인별로는 경제적, 정서적 부양의식에 연령, 학년, 가족관계 만족도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연령과 학년은 정적관계로 나타났으나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적관계로 나타났다. 서비스 부양의식에는 연령은 정적인 관계로,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표 5>의 상관계수는 다만 두 변인간의 총체적 관계만을 나타내 주므로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경로계수(Path coefficient)에 의해 어떤 변인들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가설적인 인과 모형에 따라 개인배경 변인,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의 변인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개인배경 변인이 가족주의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N=621)

독립변인	가족주의 가치관	
	B	β
연령	.01	.06
성별	-.37	-.35***
학년	-.04	-.07
출생 순위	.02	.04
가족 형태	.08	.04
父 연령	.05	.06
母 연령	-1.74	-1.87
부모의 월수입	-.15	-.11*
가족관계 만족도	-.14	-.08
조부모 동거여부	-.10	-.10*
R ²	.17	
F	8.35***	

*P<.05 **P<.01 ***P<.001

B=비표준화된 회귀계수 β=표준화된 회귀계수
 # 가변수 - 성별 : 남(0), 여(1)
 가족형태 : 핵가족(0), 확대가족(1)
 가족관계 만족도 : 만족(0), 불만족(1)
 조부모 동거여부 : 동거경험 유(0), 무(1)

〈표 7〉 개인배경 변인, 가족주의가치관이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N=621)

독립변인	종속변인							
	부모의 부양의식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서비스 부양의식		전체 부양의식	
	B	β	B	β	B	β	B	β
연령	.02	.11	.06	.28***	.05	.25***	.04	.26***
성별	.03	.04	.14	.14*	.13	.13*	.10	.12*
학년	.02	.04	-.06	-.12	-.07	-.13*	-.04	-.09
출생 순위	.02	.03	3.92	7.18	.02	.04	.01	.03
가족 형태	-.14	-.08	-.02	-.848	-.17	-.08	-.11	-.07
父 연령	.02	.03	.03	.03	.02	.03	.02	.04
母 연령	-.01	-.01	-.11	-.12*	-.05	-.05	-.06	-.08
父母의 월수입	.06	.05	.06	.05	.08	.06	.07	.06
가족관계 만족도	-.17	-.12*	-.18	-.10*	-.19	-.11*	-.18	-.13**
조부모 동거여부	.04	.05	.05	.05	-5.45	-5.39	.03	.04
가족주의가치관	.11	.13*	.28	.29***	.18	.19***	.19	.25***
R ²	.06		.13		.08		.12	
F	2.42**		5.27***		3.19***		4.73***	

* P<.05 ** P<.01 *** P<.001 B=비표준화된 회귀계수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 # 가변수 - 성별 : 남(0), 여(1)
 가족형태 : 핵가족(0), 확대가족(1)
 가족관계 만족도 : 만족(0), 불만족(1)
 조부모 동거여부 : 동거경험 유(0), 동거경험 무(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노후의 부양의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p<.001), 가족주의가치관(p<.001), 가족관계 만족도(p<.01), 성별(p<.05)의 순으로 이러한 모든 변인들이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을 설명해 주는 설명력은 12%였다. 즉, 부모 부양의식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연령(.26)과 가족주의가치관(.25)으로 그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다시 말하면 연령이 높고 가족주의가치관이 높으며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전체 부양의식이 높았으며 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양의식의 내용 중 경제적 부양의식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가족주의가치관(.13), 가족관계 만족도(-.12) 순이었다. 즉, 가족주의가치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았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경제적 부양의식을 6%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정서적 부양의식에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는 가족주의가치관(.29), 연령(.28), 성별(.14),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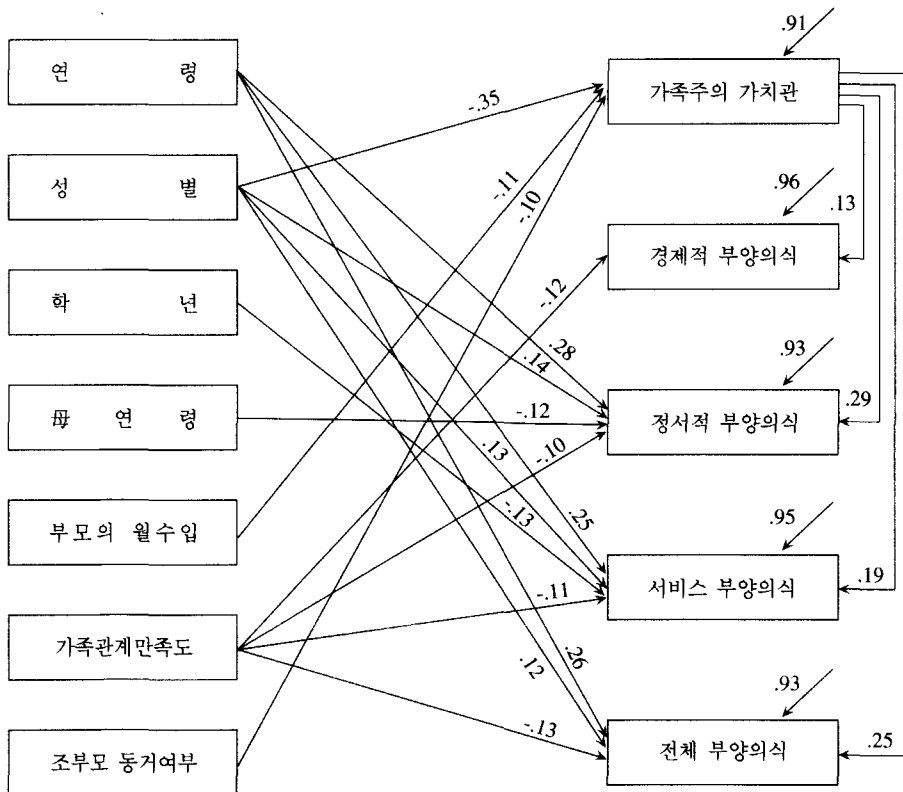
연령(-.12), 가족관계 만족도(-.10) 순으로 이러한 변인들이 정서적 부양의식을 설명해 주는 정도는 13%였다. 서비스 부양의식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연령(.25), 가족주의가치관(.19), 학년(-.13), 성별(.13), 가족관계 만족도(-.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서비스 부양의식을 설명해 주는 설명력은 8%였다. 따라서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서비스 부양의식에 모두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가족주의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로서 그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족주의가치관이 높을수록 즉, 가족중심의 집합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또한 가족관계에 있어서 만족할수록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의 모든 영역에서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과 가족관계만족도 정도에 따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가족주의가치관이 높을수록 부모부양의무감이 높다는 선행연구(김송애 외, 1991; 최경혜, 1997) 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이와같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개인배경 변인,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련된 변인의 인과모형을 그린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p <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회귀선만 표시하였다.

<그림 2>의 인과모형에서, 가족주의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35)이고 다음으로 부모의 월수입(-.11), 조부모 동거여부(-.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월등한 차이를 나타내 남학생인 경우, 또 부모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주의가치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노후의 전체 부양의식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인은 연령(26), 가족주의가치관(25), 가족관계 만족도(-.13), 성별(.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가족주의가치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남학생이 부모노후의 전체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 중 가족주의가치관은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부양의식과 가장 높은 총체적 관계를 나타내 부모노후의 부양의식 전반의 인과적 효과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이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며 따라서 효과적인 부양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가족주의가치관 정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개인배경 변인,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의 인과적 모형

그림의 외부화살 표시는 잔차효과로서 $\sqrt{1-R^2}$ 로 계산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의 일반적 경향은 2.79점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족중심적 집합주의 경향을 갖고 있었다.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을 가장 증시하여 친척관계에 대한 집합주의는 비교적 높으나, 자신의 결혼이나 직업선택 등에 있어서 부모의사나 가족의견에 따르기 보다는 개인중심적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아들을 증시하는 가문의주의 영속성'에 대한 의식도 상당히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의 전반적인 경향은 4.23점으로 매우 높았고, 경제적 부양의식은 4.38점, 서비스 부양의식은 4.31점, 정서적 부양의식은 4.0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가족주의가치관이 가족중심의 가치관에서 개인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어도 여전히 부모에 대한 효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부모 부양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대학생들이 실제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연령층에 대한 연구 결과들(김송애 외, 1991; 안선영 외, 1996)에 비해 상당히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양의식만을 조사한 것이라 실제로 부양행동을 할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예상된다.

셋째, 개인배경 변인에 있어서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핵가족이, 母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주의가치관이 낮게 나타나 근대화가 개개인의 가치체계와 의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점차 가족우선 중심의 가족주의가치관으로부터 개인중심의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독교와 무교가, 부모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가족주의가치관이 낮았으나 가족관계에 만족한 집단일수록, 조부모 동거경험이 있거나 현재 동거중인 경우, 노인관련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집단이 가족주의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의 가족환경이나 경험이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네째,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은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의 월수입이 중인 집단이 부모노후의 경제적 부양의 부담이 높고 노부모의 정서적, 서비스 부양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부양의식이 모두 높아 원만한 부모-자녀관계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중요한 영향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가족주의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배경 변인은 성별, 부모의 월수입, 조부모 동거여부로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조부모와 현재 동거중이거나 과거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전통적인 가족주의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연령과 가족주의가치관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주의가치관이 높을수록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 만족도, 성별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양의식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개인배경 변인, 가족주의가치관,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의 인과적 관계에서 가족주의가치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부모의 월수입, 조부모 동거여부 순이었으며,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가족주의가치관, 가족관계 만족도, 성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주의가치관은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부양의식과 가장 높은 총체적 관계를 가지면서 부양의식 전반의 인과적 효과도 상당히 높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밝혀져 가족중심적 집합주의 가치관을 지닐수록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을 높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록 연령이 낮고 핵가족화 될수록, 부모의 월수입(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가족주의가치관이 낮게 나타나 근대적 가치관 즉, 개인중심적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노후의 부양문제에 있어서는 남녀 대학생들의 부양의식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은 노부모부양은 여전히 전통적인 효사상의 고취로 인해 가족중심의 가족주의가치관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화이론에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고려하고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에 따른 변화로서 노인의 지위 하락을 막는 상승적 요인들 즉, 가족제도의 유지, 경로의 가치관 유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현대화이론의 단점을 증명하였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근대화가 계속될수록 노인의 지위가 하락되어 노인부양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부양이 불가피하게 되리라는 견해를 지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가족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가족주의가치관과 부모노후 부양의 책임의식은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인복지정책도 '선가족보호 후사회보장'이라는 정책방향을 기본으로 전통적 의미의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여 노인문제를 가족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은 가족의 전통적 가치를 지지하려는 의도보다 정부의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이양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정무장관 제2실, 1989).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되도록 변화하는 사회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근거로 한 정책수립과 실천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전통적 가족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족기능 강화의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노부모 부양수당, 부양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주택혜택,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부양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미래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노인문제에 대비하여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현대의 가치체계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상의 연구에서 다음 몇가지를 제안하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1) 노인을 위한 국민교육으로서, 가정에서의 정신적, 물질적 효도를 권장하고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 사회와 국가가 제도적으로 경로사상을 가르치며 지역사회 책임으로 재가노인에 대한 다양한 노인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및 세제, 수당 등의 각종 혜택을 우선 제공하여 가족부양체제의 유지강화를 국가

적 차원에서 가일층 지원해 주어야 한다.

2) 부모부양의식에 가족관계 만족의 중요성이 부각됨을 볼 때, 가족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여 자녀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부모-자녀간에 원활한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의 황적 유대감과 연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노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계규범도 설정될 필요가 있다.

3) 부모부양의식이 아직은 전반적으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적, 서비스 부양의식보다 정서적 부양의식의 수준이 다소 낮은 것은 공적제도 중심의 노인복지정책으로도 해소될 수 없는 노인의 소외와 고립, 비인간화의 문제 등을, 가족부양체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즉, 가족이 제일 잘 제공할 수 있는 애정과 관심, 빈번한 교류 등 정서적 부양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 및 노력이 요구된다.

4) 본 연구는 실제 부양을 담당하지 않고 있는 대학생들의 부양의식만을 조사한 것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가족주의가치관이 실제 부양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5) 향후 연구과제로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이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양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부양정책수립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가족주의 가치관정립과 경로효친사상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관련 자원봉사프로그램 및 청소년자녀를 위한 노부모부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끝으로, 문명에 대한 인간성은 노인을 대하는 방법에 기준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Bunzel이 강력하게 표현한 것 같이 인간문명이란 경로효친사상의 실현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고 볼 때 노인 부양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의식교육과 태도변화가 요구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1) 경제기획원(1992), 한국의 사회지표, p.306.
- 2) 경제기획원(1996), 한국의 사회지표, p.123.
- 3) 고영애(1990), 한국 청소년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 4)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3호, pp.45-46.
 - 5) 김승애·조병은(1991), 가족주의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기혼여성의 시가와 친가에 대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2호.
 - 6) 김중숙(1986),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김태현(1996), 노년학, 서울: 교문사.
 - 8) _____(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김해운(1977), 현대사회와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서병숙(1986),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6호, p.117.
 - 11) _____(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성규탁(1995), 부모 부양의지의 비교문화적 고찰, 박재간 외 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지」, 1995.
 - 13) 손인수(1978), 한국인의 가치관: 교육가치와 재발견, 서울: 문음사, P.65.
 - 14) 송현애(1986),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76-80.
 - 15) 안선영·김명자(1996), 신세대 부부와 중년기 부부의 효도관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6호.
 - 16) 안치민(1997), 가족변화와 노인복지정책, 한국가족복지학, 제2권 1호, p.138.
 - 17) 양춘(1984), 청소년문제와 노인문제, 서울: 정음사.
 - 18)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2-14, 99-103.
 - 19) 우미경(1988), 노후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이광규(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p.15.
 - 21) 이선자(1989), 각 연령군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노년학 9권, pp.79-91.
 - 22) 이주원·안선미(1986), 사회변동과 세대간의 가치관차이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17, 한국청소년연맹 부설 한국청소년연구소, pp.72-76.
 - 23) 이희자·김영미(1996), 청소년의 부모부양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제 34권 2호, pp.117-128.
 - 24) 임인혜(1987),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임의섭(1986),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정음사.
 - 26) 임종권 외(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27) 임한순(1992), 농촌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장선주(1989),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생활감정 및 교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55-60.
 - 29) 장인협·최성재(1987), 노인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25, 111-112.
 - 30) 장현섭(1994), 현대 한국가족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 논문, p.23.
 - 31) 정무장관 제2실 정책자료(1989), 노인문제 종합방안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
 - 32) 차홍봉(1995), 노인복지관계법의 개정방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창간호.
 - 33) 최순남(1997), 노인과 가족부양,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복지 정책연구, 제2권 제3호, p.59.
 - 34) 최승원·정혜정·서병숙(1997), 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 제 15호.
 - 35) 최재석(197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p.23.
 - 36) 통계청(1991), 「장래인구추계(1990-2021)」
 - 37) 통계청(1996), 「인구동태통계연보」
 - 38) 통계청(1991: 1996), 「한국의 사회지표」
 - 39)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p.221.

- 40) 한은주·김태현(1994),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한국노년학*, 14권, pp.95-116.
- 41) 허 훈(1988), 한국대학생들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8권, pp.89-106.
- 42) 현외성(1983), 한국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7.
- 43) Bengtson, Vern L.(1975),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p.358-371.
- 44) Cowgill, D.O. & Holmes, L.D.(1972), *Aging and Moderniza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pp.1-13.
- 45) _____(1974), Aging and Modernization: A Revision of the theory, In *Late Life: Community and Environmental Policy*, p.127. Edited by J.F. Gubrium, Springfield, Ill.: Charles C. Thomas.
- 46) _____(1986), *Aging Around the World Belmont, C.A.:* Wadsworth, pp.194-200.
- 47) Gary R. Lee, Jeffrey W. Dwyer, Raymond T. Coward(1993), Gender differences in parent care: Demographic factors and same-gender preferenc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 18(1), pp.9-16.
- 48) Goode, W.(1963),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The Free Press, p.38.
- 49) Harris, Richard J.(1980),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Ethnicity, Socioeconomic Status and Generation on Familism and Sex Role Orientatio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6(2), p.173-193.
- 50) Heller, Peter L.(1970), Familism Scale: A Measure of Family Solid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2, pp.73-80.
- 51) Mischel, W.(1968), *Personality and assessment*, New York: Wiley.
- 52) Palmore, E.B. & Manton, K.(1974), Modernization and station of the aged: International Correlations, *Journal of Gerontology*, 29, p.205-210.
- 53) Rokeach, Milton(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The Free Press, p.5.
- 54) Rossi, Alice S. and Peter H. Rossi(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55) Talcott Parsons(1942), Age and Sex i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 p.604.